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36개국 95명에 3억8000만원 전달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세중)이 외국인 유학생 95명에게 약 3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3일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한국으로 유학,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6개 국가 총 95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학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의 장학금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이 2008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 8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현재까지 1933명의 유학생들에게 총 75억원이 넘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구좌청년회의소 취약계층에 마스크 전달

구좌청년회의소(회장 고대환)는 지난 2일 구좌체육관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KF-80 마스크 3840장을 전달했다.

이번 물품은 구좌청년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기념품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했다. 적십자사는 구좌읍 관내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대환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스크를 기탁했다"며 "앞으



로도 나눔과 봉사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 와인 제주점 착한가게 동참

데일리 와인 제주점(대표 유원상, 박길한)은 지난달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가 진행한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데일리 와인 제주점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된다. 착한가게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제주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착한가게는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대정읍 찾아가는 복지상담 수혜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읍장 송호철)는 최근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연금수급가구 등 15가구를 방문해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대정읍은 복지상담을 통해 취약가구 구성원의 건강,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기초생활 및 주거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조천읍 독거노인가구에 냉장고 지원



제주시 조천읍(읍장 윤순환)과 조천읍연합청년회(회장 송성태)는 지난 2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중고가전 냉장고를 지원했다. 조천읍은 2018년부터 조천읍연합청년회와 협력해 저소득 가구에 중고 가전, 가구를 기증받아 제공하거나 가구를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조상희·부금현·정용호씨 국민추천포상 따뜻한 대한민국 만드는 제주의 숨은 영웅



제주 조상희·부금현·정용호씨와 수운교 청정봉사단이 행안부 '제

10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제주도민 중에선 조상희(66)씨가 국민포장, 부금현(94)씨와 수운교 청정봉사단이 대통령 표창, 정용호(46)씨가 국무총리 표창 받았다.

조상희씨는 취약계층에게 4000시간 무료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특히 해양 환경정화 활동 봉사를 진행해 제주도에서 1만3000마대, 전국에선 3만6000마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부금현씨는 64년간 해녀생활을 하며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인재를 길러 달라며 대학교에 기부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불교봉사단체인 수운교 청정봉사단은 2010년부터 지역 내 어르신 대상 목욕·반찬·급식 봉사 등을 수행했다. 정용호씨는 복지기관에서 식사 보조, 목욕 등 봉사활동과 107회의 헌혈을 한 공로다.

일도1동지역협의체 밑반찬 기부



제주시 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중·신금순)와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2일 '노다지' 사업을 실시해 관내 독거노인 10가구에 밑반찬을 배달했다. 노다지는 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돼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을 하고 있다.

정방동지역사회보장협 도시락 지원 사업



정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삼수·김보협)는 지난 2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을 개시했다. 이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방동 희망나눔캠페인 기부금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 15가구를 선정해 매주 2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동정

시각 장애인 재활 공로 감사패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일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제주세무서 제55회 납세자의날 기념식 제이피엠 유병호 대표이사 명예서장 위촉



제주세무서는 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철저한 방역 속 사회전반에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제이피엠 유병호 대표이사를 명예세무서장으로, (주)예술과공간 임민희 대표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하고 모범납세자 15명, 세정협조자 2명, 유공 공무원 1명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김홍보씨 제주마주협회장 재선임



김홍보(사진) (사)제주마주협회 회장이 제16대 회장으로 재선임돼 앞으로 2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다.

협회는 지난달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 결산 승인과 올해 사업계획·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박성익씨,

감사에는 임계, 변공민 씨가 각각 선출됐다. 제주마주협회는 16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NH손해보험 제주총국 연간업적평가 1위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한재현·사진)이 2020년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연간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019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평가는 농협손해보험이 전국 16개 지역총국을 대상으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사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시행하는 제도다. 제주총국은 2018년 21.5%였던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2020년 51%로 올리고, 각종 재해시 선제적·체계적인 손해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기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가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기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 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문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원심사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